



녹음(綠陰)  
푸른 잎이 우거진 숲을 걷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1

단원조각공원

# 브라보안산

## BRAVO ANSAN



녹음(錄音)  
시민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다

관련기사 14면

# 안산 중심, 인천에서 평택까지 잇는 서해 수도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 제조업에 ‘인공지능’ 날개… ‘4차 산업혁명’ 견인, 대규모 일자리 ‘기대’ “1만여 제조공장과 대규모 연구단지의 융·복합 가능한 안산이 최적지”

안산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의 공약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시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은 ‘서해 수도권 첨단산업벨트 조성’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는 수도권 최대 제조업 밀집지역인 인천~안산~평택을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더불어 국가균형발전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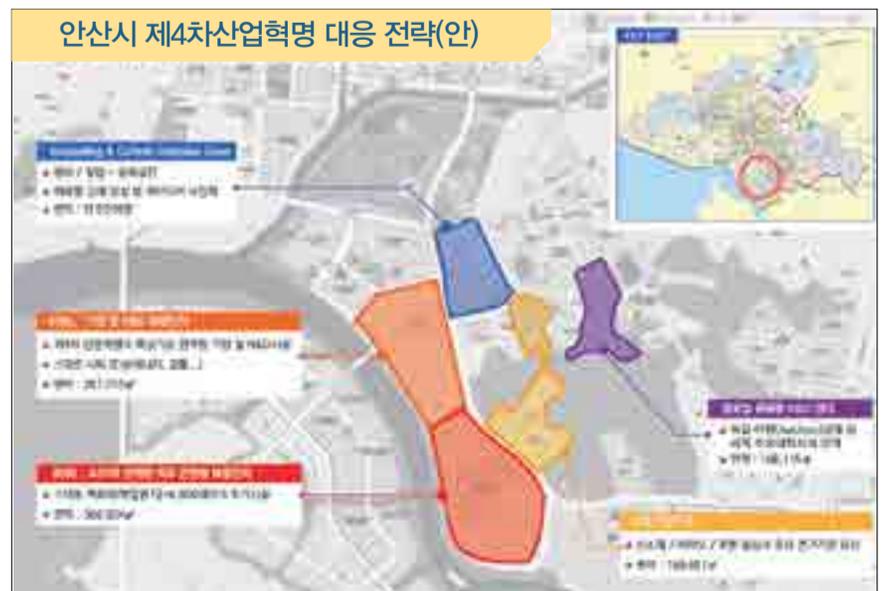
현재 인천~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 수도권에는 총 6만4천 개의 제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74만 명의 생산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만 4개에 이르고 일반산업단지는 38개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운송장비, 철강 등으로 향후 서해 남부권(광주광역시)의 자동차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안산은 IT융합, 로봇,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개발 시설이 모여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의 황중호 박사(경제학)는 “안산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지만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한다는 특성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산업 간 융·

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황 박사는 “첫째, 기존 제조업의 구조도화를 위해 ‘똑똑한 공장(스마트 팩토리)’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하며 둘째,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는 연구개발을 통해 유관 기업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시는 기존 사이언스밸리 외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89블록’ 개발 사업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안산과 중앙정부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서해 수도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INTERVIEW • 제종길 안산시장



“안산은 5도(道)6철(鐵)의 교통요지면서 4천여 명의 석박사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Q. 안산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역인 이유는?

안산은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과 KTX가 정차하는 초지역 등 광역철도망이 완성될 예정이며,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와 인천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계획되어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 우수 인재의 확보가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를 포함한 9개의 연구개발 및 지원 기관이 입지해 있는 경기도 최대의 혁신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안에는 이미 4천여 명의 석사·박사들이 활동 중이며, 9천여 종의 연구 장비도 갖춰져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첨단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센터’를 유치했으며, 인근 89블록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로봇,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첨단산업과 전통 제조업체 사이의 융합을 통한 구조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육성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

Q.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을 활용,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이루고 첨단산업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첨단부품소재·미래자동차·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 등 4대 혁신 클러스터와 각 클러스터별 맞춤형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과 혁신 기업 창업,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또한 기존 제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서해 수도권 제조업 밀집지역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인천·안산·평택 등에 모여 있는 하이테크형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Q. 서해 수도권 발전 구상은?

수도권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인천~안산~평택지역은 과거부터 부품·소재, 전기·

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최근에는 바이오·신소재·신재생에너지·로봇 등 첨단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광역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Q. 과거 참여정부 클러스터와 차이점이 있나?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각 혁신주체 간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정책이 핵심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참여정부의 산업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면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원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적으로 융·복합 환경을 조성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Q. 제조업 경쟁력 확보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유치가 확정된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안산~평택에 분포되어 있는 6만 4천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남동·반월)의 재생혁신 및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도로여건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Q. ‘글로벌 융·복합연구개발센터’ 유치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제3토취장(118,115㎡)을 활용하여 독일 아헨(Aachen)공대 및 미국 스탠포드(Stanford)대학과의 융·복합 연구개발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업 간 융합을 도모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소식通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일반인 대비 30%로 할인 확대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여론에 따라 청소년 요금의 할인폭이 늘어난다. 현재 일반인 대비 20% 할인되던 것을 30%로 확대해 시행한다.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첫차부터 적용되며 시내버스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은 만13세부터 18세까지로, 우리시에는 약 5만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 가정LED 교체지원, 40% 절감 기대

‘안산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2017년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희망가정에 LED 교체자금(총비용의 20%지원, 세대별 최대 12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2017년 총 360세대 지원을 목표로 5월 10일부터 아파트별 희망세대를 모집한다.

희망하는 아파트는 LED 등기구 희망세대를 모집하여 28세대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아파트가 많을 경우 희망세대가 많은 아파트 등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927)

‘이웃과 함께 한’ 성호 이익 5월 27일~28일, 성호문화제

안산 침성리(현 상록구 일동)에서 일생을 보내며 실사구시 학문을 추구한 성호 이익을 기리는 문화제가 ‘실학·전통·휴식·소통·배움’을 주제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이익 선생 사당과 성호기념관, 성호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성호문화제는 이익 선생 사당에서 열리는 송모제를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며, 극단 ‘스페이스’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인형극도 공연된다.

성호사생대회, 성호백일장도 열리며 안산시립국악단과 풍물마당 터주, 안산경기민요단과 소리꾼 최진아가 전하는 우리소리 우리 춤 공연도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젊은 전통예술인들의 ‘리듬 코리아’ 한마당이 펼쳐진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안산문화원(031-415-0041)





## ‘5도(道)6철(鐵)’ 교통 신도시 ‘안산’이 뜬다

#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에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앞뒤 안산~인천 ‘수인선’ 내년 개통, 총 6개 철도망 구축 예정

안산은 산업도시이자 계획도시며, 전원주택도시다. 그래서 도로를 많이, 넓게, 그리고 가  
능하면 반듯하게 뚫었다. 철길도 새로 연결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끄는 과정이었고,  
처음 30만 명을 산정해 계획했던 도시는 어느덧 7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더불어, 교통도 발달했다. 현재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도 계획돼 있다. 철도교통도 마찬가지다. 현재 운행 중인 4호선(안산  
선) 노선 외에 수인선과 소사-원시선 공사가 한창이며 신안산선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민간업체와 우선협상에 들어간 신안산선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  
정인 90블록, 89블록과 관련해 필수적인 요소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인천발 KTX  
정차역도 확정됐고 환상(環狀)형으로 추진되는 서울 외곽철도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현 초지역에 들어서는 KTX역은 인근 재개발단지들의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명실상  
부한 교통도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안산이 교통 신도시로 부  
각되고 있다.

### 5개 고속도로로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안산의 대표적인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며 물자수송과 관광도  
로로 이용되고 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북수원까지 확장할 계획도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서해안고속도로도 안산을 관통한다. 인  
천국제공항 및 국제해양관광단지, 충남 태안반도, 전북 변산반도, 전남 다도해 등 아름  
다운 관광지와 연결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성남~안양~안산~고양~의정  
부~구리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한다. 환상형 도시순환 고속도로로 수도권의 교통량 급증  
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2013년 개통된 평택-시흥고속도로도 안산을 지나간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 분기  
점~안산 분기점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서창 분기점~안산 분기점 구간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안산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포함됐다. 또한 서평택~매송(서해안선) 등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  
간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도 예정돼 있다.

### 6개 철도노선... 서울 30분, 전국 만나질

약 80년 전 협궤열차가 운행되던 곳을 복선 전철화하는 수인선이 내년(2018년) 개통될 예

정이다. 안산을 중심으로 수원과 화성, 인천을 왕래할 수 있는 동서 간 광역철도다. 특히, 민  
원을 반영한 반지하화 건설로 전철역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또한, 광명역~여의도~서울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될  
예정이고, 중앙역~한양대(사동90블록)까지 노선 연장도 확정했다. 서울과의 접근성 향  
상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산업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 기간철도 소사-원시선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는 반월·시화산업단지 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되  
며, 이후 소사역은 대곡-소사선과, 원시역은 서해선(장항선 홍성역과 송산역을 잇는 간  
선철도)과 연결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천발KTX의 초지역(안산시 단원구 소재) 정차가 반갑다. 이는 부산 2시간30  
분, 광주 1시간40분이라는 쾌속주행으로 전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 노선과 연계돼 전국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내·외곽을 순환하는 환상형 철도망 2개를 추진 중이라고 발  
표했다. 기존 철도망에 철로가 끊긴 구간들을 이어서 수도권에 큰 타원 모양의 철도망 2  
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대(大) 순환망은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  
부천~고양으로 이어진다. 현재 공사 중인 소사-원시선을 포함해 서울 외곽철도 대 순환  
망이 완성되고 수도권광역철도(GTX)와 연계되면, 수도권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산의 경우 서울 강남까지의 통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안팎에서 30분으로, 절반가량이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  
통부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과 소사~원시선을 약 7천억 원을 들여 연결하고, 강남까  
지 급행 노선을 구축해 4호선 중앙역~2호선 삼성역 구간의 소요 시간을 현재 60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라는 도시가 현재  
는 스마트 팩토리와 마이크로 팩토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도로망과 철도망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안산이 도로 및 철도 교통의 중  
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6개의 철도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충청  
권은 물론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  
고 나아가 안산이라는 도시의 제2 도약기를 이루는 르네상스 시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 안산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 나선다

# 55명 규모의 지원단 구성, 현장 돌며 맞춤형 정책 개발 공동 통근버스 운영... 300개사 800명 이용, “매우 만족”

안산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기관별·기업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수혜기업을 늘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공동 통근버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기업체 내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도 지원한다.

첫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인 단체와 대화마당을 운영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채널도 활성화한다. 특히,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현재 안산에는 서부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서부기업인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총 1,733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으로, 시는 월 1회 1~2개 단체와 대화 창구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기업사랑, 데이트’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을 방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사회적 기여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둘째,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조직을 활용한다. 안산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55명으로 구성된 ‘기업SOS지원단’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며, 안산시 15개 부서 20명으로 구성된 ‘기업현장기동반’을 가동해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2개 기관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업SOS지원단과 합동으로 운영·해결할 방침이며, 기관이나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복합 기업애로 긴급 솔루션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5개 이상의 기업이 자생적으로 조성된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통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셋째, 홍보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기업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나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관 홈페이지와의 연동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넷째,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시흥시는 45인승 버스를 각 5대씩 총 10대를 마련, 1일 300개 회사 약 800명의 이용객을 예상하고 있다. 안산역, 상록수역, 오이도역, 정왕역 등 4개 전철역과 연계해 1일 50회를 운행한다.

### 편하고 저렴한 공동 통근버스 “최고”

안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 애로해소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동 통근버스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다.

안산역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황소영(24세, 에이엘에스 근무) 씨는 “6개월째 이용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도 더 늘고 회사 앞에 바로 하차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며 “더구나 일반버스보다 더 안락하고 배차시간도 정확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채성배(20세, 엘지엠호이스트 근무) 씨도 “일반버스를 타면 밟히고 치어 몹시 불편했는데 훨씬 좋은 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구나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주니 정말 좋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안산시의 행정적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안산에서 1공장과 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자체 운반을 위해 직선으로 180미터만 이동하면 될 거리를, 중간에 있는 도로 때문에 1.2km를 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도로를 관통하는 연결 도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미비해 해결할 수 없었고, 안산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1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 결국 안산시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부 해제 및 점용’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3개월이 소요되던 행정 처리를 단 1개월 만에 단축·승인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서울 금천구에 있던 본사를 안산으로 이전하고 2019년까지 임직원을 4천 명으로 증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7천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서울반도체는 2019년까지 48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66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라 할 만하다.

제증길 안산시장은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췄으며, 특히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다.  
일자리 늘리고 지역 경제 살리겠다.

## 민선6기 핵심사업 성과 및 계획



■ 도시에 숲을 가꾸고, 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을 위해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마이스산업도 더불어 키웁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 숲의 도시

## 생활권 도시 숲 5.77㎡에서 8.82㎡로 53% 증가



“숲의 다양한 기능으로 도시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도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 안에서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그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안산시는 오는 2030년 까지 생활권 도시 숲을 15㎡로 확충한다. 이는 런던 27㎡이나 뉴욕 23㎡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파리 13㎡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공존의 숲’ 둘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숲’ 셋째, 스트레스 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치유의 숲’ 넷째, 청정한 공기와 도시온도 저감의 녹지네트워크인 ‘기후변화 대응 숲’이 그것이다.

지난 3년의 노력 끝에 이룬 성과들도 많다. 먼저, 생활권 도시 숲의 면적이 2014년 5.77㎡에서 2017년 8.82㎡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9㎡에 근접했다. 또한 삼지공원 179개소, 옥상녹화, 학교 숲, 생활환경 숲, 가로 숲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정책적으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차별화된 도시 숲 모델을 제

시했으며, 시민들의 공감과 실현의지를 밝히기 위해 ‘숲의 도시 안산’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기술을 교류하고 생물 다양성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시 숲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체계적인 도시 숲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안산시는 2030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15㎡) 확보를 위해 도시 숲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공원, 녹지,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치유·교육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제5회 경기정원 문화 박람회가 개최되며, 국제 도시 숲 컨퍼런스도 열린다.



### 에너지 자립

## 대부도에너지타운 건립... 녹색에너지 '대상'



안산시는 지난해 발표한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전기 줄이기’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약 4조6천5백억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적극적이며, 시민햇빛(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시민편드를 연 4% 확정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문화의 확산, 안산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운영,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용 LED 보급, 스마트 그리드 사업, 스마트 홈 조성 등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도를 카본(탄소) 제로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화 에너지클러스터와 대부도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며 누에섬과 방아머리에 풍력발전기를 운영한다. 특히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방아머리 일원에 383억(국비 35억, 도비 30억 포함) 원의 예산을 투입, LNG 위성기지 및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며,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과 홍보관, 스마트 팜(Farm, 농장)도 운영한다. 에너지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에너지 나눔 봉사단도 운영하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이머 콕도 보급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안산시의 노력들은 여러 수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제37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2016년 에너지 정책추진’에서 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한국일보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최·후원한 ‘제11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향후에도 안산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공공청사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 주택이나 산업단지 기업체의 지붕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도 카본제로도시를 위해 친환경 전기버스 및 ESS를 이용한 전기충전소도 설치한다.



일자리

## 서민과 청년 중심, 노동인권 그리고 생활임금 시행



안산시는 서민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일념으로 체계적인 정책들을 구현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18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440개를 추가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2만5,600여 개의

일자리를 목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올해 초 경기도시공사와 따복하우스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스마트허브 원시운동장 부지에 200실 규모의 주거시설을 건립해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창업도 지원한다.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마케팅부터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창업 공간 ‘청년큐브’가 그것으로, 한양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인근 상가의 공실을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현재 30실 30팀 100여 명이 입주하고 있다.

지역 내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청년과 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모델로 평가됐다.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제종길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최저임금보다 나은 생활임금도 도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으로,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7,370원, 월 154만330원(주40시간 노동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보다 13.9%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4차 산업혁명

## 3D프린터로 시제품 소량생산 지원... 제조업 활로 개척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시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초기지화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안산을 중심으로 인천과 화성, 평택을 잇는 서부 첨단산업벨트 조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안산시는 약 1만여 개에 이르는 제조업체가 있는 국가산

업단지 도시이자, 한양대학교와 한국생산성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첨단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한 안산 사이언스밸리라는 지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최적화된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허브로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정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과제로, 제조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환경에 대응한 산업 융합의 선제적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시작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 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 공장 표준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시화MTV내 AMC건물에 임시 구축한 후 최종적으로 안산시 사동 90블록 복합연구개발 부지로 옮길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 전문공장인 ‘마이크로 팩토리’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소량 제품생산이 가능해 제조업 창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안산시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잠재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개발·제품상용화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 살피고, 알리고, 돌보는 희망이웃협의회



안산시는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살피고, 알리고, 돌보는 우리동 희망이웃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

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우리동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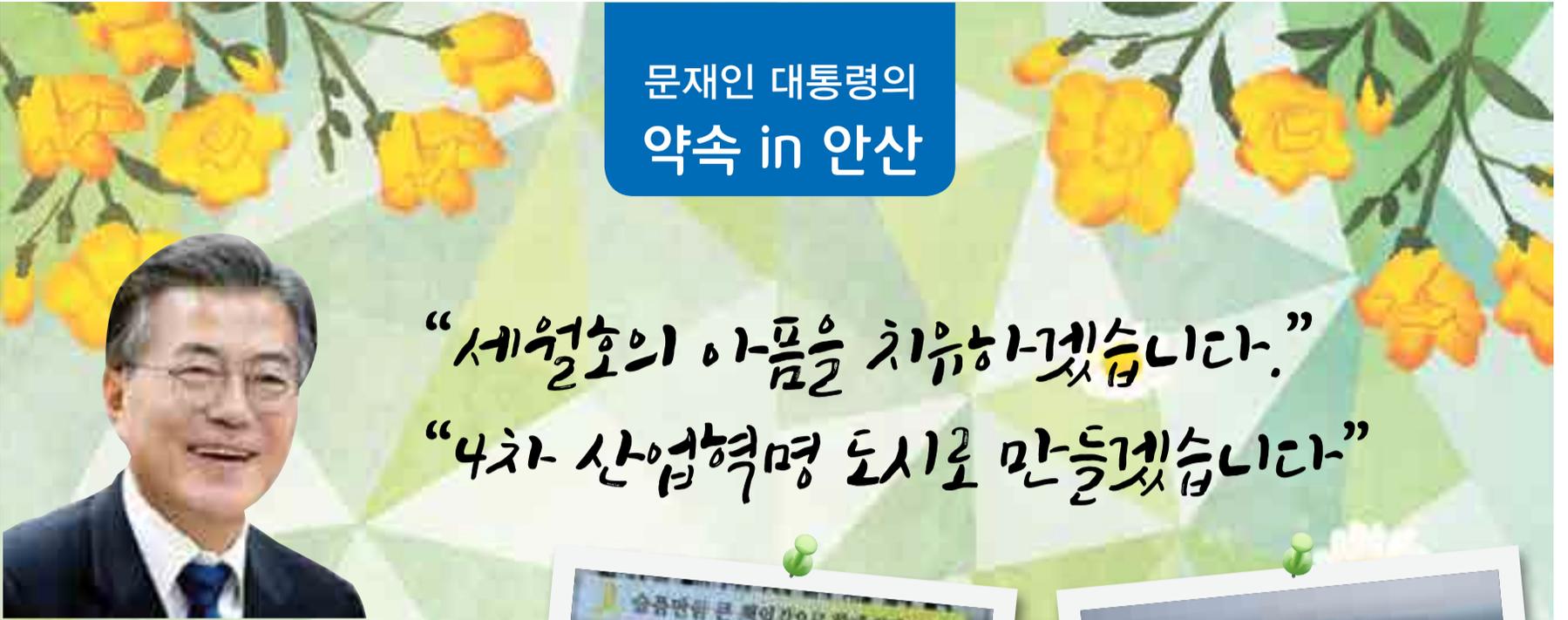
제종길 시장은 “우리시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의 봉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이웃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따뜻한 복지공동체 안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안산시는 경기도가 자체 평가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복지대상자와 지역지원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으로, 동 주민센터

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시정원칙에 맞춘 ‘희망 일 드림’ 창구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안산시 전체 25개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취업상담 창구인 ‘희망 일 드림’이 취업의 최일선에서 밀착형으로 일대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7년 5월 19일 기준 유선상담(구인 7,264건 구직 57,298건)과 방문상담(구인 207건, 구직 8,005건)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총 35,139건의 알선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희망 일 드림’ 창구를 통해 취업한 시민은 총 9,036명에 이른다.



**첫째,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 (가칭)안산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산시민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심리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 공동체 복합시설 설립 및 운영  
 “지금 안산에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및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붕괴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치료·문화·소통·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립함으로써 향후 안산시 공동체가 회복되는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안산이 슬픔과 아픔의 도시를 넘어 회복과 공동체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업종의 첨단화를 위해 재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융·복합 집적지 조성을 위한 구조 고도화 혁신사업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낙후된 제조업 단지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한민국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와 마이크로 팩토리 등 스마트 공장의 시험무대를 적극 활용하며 안산 내 제조업 시설에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공약1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 적극 지원  
 “수도권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안산스마트허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약2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대통령 특권을 국민께 반납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 지방분권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공약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 ◆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 ◆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

**공약8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 ◆ 0세부터 초등학교 자녀 돌봄 부담 해소
- ◆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공약3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등 재벌개혁추진
- ◆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공약6 ▶ 성 평등한 대한민국**

- ◆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등 일자리 차별 해소
-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공약9 ▶ 서민 소득이 늘어나는 대한민국**

- ◆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
-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공약4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 자주 국방력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공약7 ▶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 ◆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공약10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 ◆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안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적극 나선다

# 대책상황반 운영...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에너지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석탄 No"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밖에 나가 뛰어 놀 수가 없어요."

요즘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가 적극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미세먼지 원인 중 76.3%가 중국의 영향인 만큼 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하겠다는 의지다. 국내 원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건설중장비, 제조업 등이 꼽힌다.

이를 위해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5월 17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 종합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양진철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환경정책과 등 11개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의보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 환경정책과장을 상황반장으로 대기보전 담당자 2인이 함께 하며 각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비상지원에 나선다. 상황반은 지역 내 전광판이나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알

리는 데 주력하며, 각 과별로 산업단지 순찰, 살수차량 확대, 소각장 가동율 저감 등을 실시하며 건설 공사의 외부작업도 중단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하며 매년 저감장치 부착도 권장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목표를 100대로 잡았으며, 경유버스의 CNG 버스 대체,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며,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노후 및 효율저하 방지시설 교체 위해 보조금과 용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조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진철 부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은 외부의 영향이 크지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안산시는 전국 25개 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에너지 분권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의장은 제종길 안산시장이 맡았으며, 지난 4월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5월 22일 긴급 임시회를 진행한 제종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온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는 화력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새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환영하며 협의회가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612)

## 세월호, 미수습자 3명 확인... 故이영숙 씨 '가족 품으로'

# 수습본부 "작업시간 늘려 더 더워지기 전에 마무리하겠다"

"때 이른 무더위에 지칠 만도 하지만, 손길을 늦출 수 없다. 마지막 미수습자까지 꼭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목포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관계자의 인터뷰 말이다.

현재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은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열을 받은 선체 내부는 바깥보다 최고 5도까지 더 오른다고 한다. 단순히 참기 힘든 더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선체 내 가득 쌓인 펠(갯벌)들이 굳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다. "굳어진 펠은 돌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며, 수색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닥치기 전인 6월 중순 또는 6월 말 전까지 세월호 3~5층 1차 수색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



특히 3, 4층 주요 구역은 이달 말까지 추가 수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 현장에 나가있는 안산시 세월호수습단의 이경숙 계장은 "아침부터 정말 덥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너무 뜨겁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수습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래서 작업 시간도 늘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곳에 마련된 컨테이너에는 보통 5~7가구에서 7~9명 정도의 미수습 가족들이 수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의 지원을 위해 안산시도 상시 2명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24일,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발견됐으며 여러 정황상 故이영숙 씨로 판명돼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편, 5월 26일 오전 11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위원회(제1소위원장 권영빈, 제2소위원장 김영모)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1소위원회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유류품 수습 현황과 선체조사 계획, 휴대폰 포렌직 사례 등을 보고 할 예정이며, 제2소위원회는 세월호 선체보존 검토, 화물계측 검토 및 선체보존 세미나 전문가 활용 등을 보고하고 논의한다.

## 안산시, 오는 7월 '시민의 삶' 향상 위해 조직 개편

# 도시재생 · 청년정책 · 에너지자립 · 공공빅데이터係 신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강화한다”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화를 선언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더불어 복지허브화의 조기 구축도 목표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복지 허브화를 조기에 구축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노력해왔다. 우선, 본청 복지문화국에 3급 직위가 신설된다. 또한 본청의 농업행정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통·폐합해 4급 농업기술센터도 새롭게 만든다.

이번 조직 개편은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복지거점으로 개편한다.

기존 행정수요에 대해 적극 대처하며 새롭게 발굴된 신규 수요도 반영해 도시재생계, 청년정책계, 공공빅데이터계, 에너지자립계, 장묘문화계, 지적재조사계가 신설된다.

도시재생계는 안산시가 시승격 30년을 넘기며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재건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정책계는 청년실업, 저출산,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것으로 근본대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전담팀으로 구성된다.

공공빅데이터계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에너지자립계는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실행 및 에너지 신산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카본제로도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등을 추진한다.

한편, 2017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67명)도 예정돼 있다.

◇ 문의 : 안산시 총무과(031-481-2117)

## 안산시, 시민의 뜻에 따라 동명칭 바꾼다 원곡본동 ⇨ 원곡동과 신길동 원곡1동과 원곡2동 ⇨ 백운동



안산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에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25개 동 중 8개 동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8개 동 변경 명칭은 새1동, 새2동, 새3동, 고잔1동, 고잔2동이 각각 새동, 새1동, 새2동, 고잔동, 중앙동으로 변경된다. 또한 원곡본동은 원곡동과 신길동 2개동으로 나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하나로 통합해 백운동으로 바꾼다.

이번 동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조정은 지역정서를 반영

한 개성 있는 동 명칭 사용과 인구·면적 등 동 규모의 많은 편차에 따른 행정서비스 차별을 시정하고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의 선제적 관할구역 설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조례개정을 위해 지난해에 25개동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해 주민의 요구가 있는 14개동을 정하고, 주민의 찬성이 많은 8개 동에 대해서만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치행정과(031-481-3444)

## 2017년도 1차 추경 2조7,272억 확정 749억 증가 사회복지 중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587억,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162억을 포함해 당초 예산 대비 2.83%인 749억이 늘어난 2조 7,272억으로 확정됐다.

세입은 90블럭 관련 공유재산 특별회계로부터 142억의 전입금과 국·도비 등 추가 내시액 432억, 내부 적립금 등 500억 삭감 조정 내역이 반영됐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5억의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전년 이월사업비 59억 등 64억을 증액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확보와 도로개설, 안산시의 미래 가치투자 및 문화재생을 위한 토지 매입,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416억(누리과정 269억, 둔배미복지센터 건립 9억,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 교통 및 주차장 분야 307억(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6억, 대부동 주차장 77억, 부곡동 진입도로 개설 64억), 문화 및 관광 분야 196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하천 정비 및 녹지 조성 분야 57억(반월천 정비 16억, 삼지공원 조성 등 16억), 환경보호 분야 9억(전기차 구입지원 8억) 등이 포함됐다.

이 외 사사동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구 단원구청사 철거 및 이전 관련 비용 등도 반영됐다.

◇ 문의 : 안산시 예산과(031-481-2052)



## 안산시, 한전과 손잡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본오주공아파트 519세대 대상...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대상 2017)

안산시는 5월 2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본오주공아파트와 함께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AMI기반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 '안산 에너지비전 2030' 실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사업운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안산시는 해당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본오주공아파트는 계량기 교체,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추진전략'에 따라 올해 서울, 충남 등 전국 12개 지자체(광역시, 기초포함)와 7개 민간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총 301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상가에 AMI기반 전력서비스 및 에너지 소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국 기준 전력사용량 106GWh(기가와트/시간)를 절감하고 48,718tonCO2를 저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신기후체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새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향후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을 포함한 원전기 줄이기 에코센터 조성, 대부도 에너지타운 건립 등 안산시 에너지 시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오주공아파트 519세대를 대상으로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특히 비용 전액을 국·도·시비와 민간컨소시엄으로 마련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로써 세대 내 실시간 전력사용 정보 확인 및 전기가계부 운영이 가능해져 생활 속 에너지 절약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238)

## 안산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최종 선정

### 원전1기 줄이기 에코센터 조성, 도비 3억1천만 원 확보



안산시가 '2017년 지역사회 공헌형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에 선정돼 도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산시는 '원전1기 줄이기 에코센터 조성사업'과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은 2015년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선포 이후 시·군 및 민간투자자에게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민간자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도입된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원전1기 줄이기 에코센터 조성사업'은 안산에 건립되는 경기도 최초 에너지

홍보·교육·체험관으로, 절약기술(Passive)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안산 특화형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햇빛발전소'는 안산시 공공시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시민출자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에너지 교육을 실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종길 시장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도비를 확보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선포한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산시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및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927)

## 안산시, 행정자치부 제도운영 평가 최우수

### '공유와 협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호평

안산시는 5월 8일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분석결과 안산시는 자치구를 제외한 16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산시는 '공유와 협력,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민선 6기' 제종길 안산시장은 '시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민·관·의회가 협력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며, 관련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노인, 여성, 도시농업, 청년, 청소년 등 각계각층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의와 주민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했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우리시는 2005년 선도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 후 수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노하우와 성과를 갖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를 늘리고 민주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시에 특화된 '안산형 주민참여예산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예산과(031-481-3031)



종길씨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다

제종길 시장은 상록구 일동에서 발생한 민원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민원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민원인의 바람을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30

### 매주 월요일 첫 일정은 '세월호 분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해 6월 안산시장으로 선출된 제종길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첫 일정으로 '세월호 분향'을 지속하고 있다.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후 묵념하며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요즘, 제종길 시장의 기도는 더욱 절실하다.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과 진실규명,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08:30

09:30

### 28년8개월 근무한 공직자의 퇴임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의 명예퇴임식이 있었다. 2017년 5월 16일 기준으로 총 28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공직자로 근무했던 분의 명예로운 퇴직이다. 제종길 시장은 떠나가는 이홍재 소장에게 “이제 인생 2막을 맞아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공직에서 해 왔던 것처럼 일하시면 좋은 일만 생기고 승승장구 할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10:30

### 떠난 자리는 곧 다시 채워진다

30년 가까운 긴 시간을 공무원의 명예 퇴임식을 마치는 이날 새롭게 임용되는 일, 아이러니하다. 떠나는 면, 들어오는 이도 있는 법. 반드시 채워지기 마련이다. 이날 청원경찰로 임용된 4명의 신임 임용장을 수여했다.



시장의 하루는 어떨까?

안산시장을 위한 관사는 없어졌으니 출근은 반드시 할 텐데,  
그 시간은 언제쯤일까?

또, 점심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으로 할까?

하루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눌까?



### 사립유치원 교육자들과의 만남

공무원들의 공식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제종길 시장은 안산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가 열리고 있는 AW웨딩홀(단원구 광덕1로 소재)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뿌리유치원의 이진영 교사와 행복한유치원의 김광석 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현재 안산에는 총 57개의 사립유치원에서 8,430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원은 총 450명에 이른다.

###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제종길 시장은 곧이어 ‘2017년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 상록웨딩뷔페(상록구 상록수로 소재)로 향했다. 현재 안산에는 350여 명의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보육에 수고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모범교사에 대한 표창 및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켰다.

11:30

12:00

18:00

18:30



### 안전한 먹거리가 제일 중요

안산시와 지역 내 식품제조·판매업소와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것으로, 롯데푸드(주)안산공장, (주)사조대림안산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안산공장, (주)아워홈안산공장, 롯데마트안산점, 이마트고잔점, 홈플러스 안산점이 참여했다.



### 사회적기업 관계자들과의 점심

제종길 시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안산에는 사회적기업(인증 17개, 예비 9개) 총 267개, 협동조합(일반 영리법인 101개, 사회적 비영리법인 9개) 총 115개, 마을기업 5개 등 총 14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이날 점심은 “사회적으로 협동이 잘 됐다.”는 평가다.

원으로 근무했  
치고 이어진 행  
직원을 맞이하  
는 사람이 있으  
인 자리는 곧 다  
제종길 시장은  
입 공무원들에





# 토크 콘서트

## 제종길 시장 & '안산시흥맘모여라'

### 엄마들과 만나 육아 · 교육 · 미세먼지까지... “화통하게 소통”

“시장님 오늘 예쁘세요!” 정다운 농담이 오고가는 소통의 공간 ‘안산시흥맘모여라(이하 안시모)’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현장을 찾았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엄마들이 생각하는 안산’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육아, 교육, 가계 경제, 도시 환경에 대해 ‘안산에 살고, 안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연 것.

‘안시모’는 7만3천여 명이 가입해 활동 중인 네이버 카페 모임으로 안산·시흥의 엄마들이 출산, 육아, 교육 정보 등을 나누는 12년째 운영되고 있는 유명 커뮤니티다. ‘엄마들’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을 직접적으로 챙기며 살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체이다. 그런 ‘엄마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안산’에 대해 말하고 듣는 토크콘서트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더플레이그라운드(단원구 고잔동 소재)에서 진행됐다.

아이들 품에 앉고 참여한 한 워킹맘이 물었다.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제종길 시장은 “아이가 가까이 있어야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미 보육시설이 의무화됐지만 안산은 중소기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역단위로 모여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유하며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력단절 여성과 출산율 저하, 육아지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제 시장은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는 것은 한가정의 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일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출산 및 육아휴직자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의 손실을 막고 복귀율을 증가시키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학자금, 교복비 및 양육비 지원사업, 공교육기반 강화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종길 시장을 “친정아버님”이라 부르던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물었다. “교육도시 안산, 사람중심 안산의 인재육성은 어떠한가?” 제종길 시장이 답한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시 경쟁 위주 교육을 탈피하고 행복교육을 위해 관내 109개교의 학교가 에코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쉼터 등이 운영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학업을 포기하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해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재교육에는 ‘숲이 답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자연의 창의력이 합쳐져야 진정한 인재가 된다. 사람을 물질이나 자본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즘 주부들이 제일 사고 싶어 하는 가전제품이 뭘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제 시장은 “사실 심각하다.”며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 ‘도시 숲 가꾸기’, ‘자전거(페달로)의 확대’ 등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도에서 온 한 아이엄마는 “도서관 옆 공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제종길 시장은 “조만간 확인하고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소통했다.

유모차 굴러가는 소리, 아기들의 울음소리, 중간 중간 들려오는 농담에 함께 웃는 소리들까지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는 정다운 대화의 장이었다. 사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안산의 엄마들, 갓난아이까지... 안산에 함께 사는 공동체가 모여 안산의 현재를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체험학습 진행

### 농산물의 수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직접 경험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김재경)은 어린이들에게 농수산물 유통과정과 도매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농산물의 수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체험학습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이뤄지며 지역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25명 이상) 대상으로 약 2시간 정도 진행된다. 5월부터 시작해 월 1~2회,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접수 후 추첨으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은 도매시장 소개와 과일 시식, 그리고 2개의 선택 체험활동으로 이뤄진다. 땅속의 구근류를 텃밭에서 직접 캐갈 수 있는 '숨겨진 농산물을 찾아라!',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알쏭달쏭 농산물 이름 맞추기', 개별 바구니와 학습용 모의 돈 3000원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며 경제관념을 배우는 '내가 도매시장 쇼핑왕! 시장보기 체험', 살아있는 수산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오감체험활동 '꼼짝 마! 물고기! 맨손 잡기(하절기만 운영)' 등이 마련됐다.

김재경 소장은 "시장놀이와 농산물 캐기 체험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과 어우러지는 친숙한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기대한다. 평상시 먹고 마시는 농수산물이 어떻게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본오어린이집 강성주 원장은 "도시 아



이들에게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다. 아이들에게도 평소 보기 어려웠던 살아있는 수산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031-481-3806)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기 원한다면 '2018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성맞춤이다. 안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주민제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 공모기간을 운영한다. 안산시 예산공개시스템(<http://fin.iansan.net>)이나 전자우편([sejin73@korea.kr](mailto:sejin73@korea.kr)), 팩스(031-481-3189), 동 주민센터 민

## 2018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생활 속 꼭 필요한 사업 제안해주세요”

원실에 제안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웃과 화합을 이루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간단한 제안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018 예산에 편성될 규모는 약 100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85억 원이었다.

시는 지난 5월 1일 이후 각 동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현장 설문조사 실시 등 예산 편성권을 통해 시민의 시장참여를 적극 확대

하고 있다. 전덕주 안산시 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여 안산시 예산을 만들어가는 제도"라며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작은 변화가 더 행복한 안산을 만드니,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없애 줄 현안이나 주민복지 사업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2011년 9월 의무적으로 도입됐다.

◇ 문의 : 안산시 예산과( 031-481-3028, 303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 “한 곳에 모아 소각... 환경오염 막아요”

어느 가정이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있기 마련이다. 몸이 나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된 알약이나 쓰다 남은 연고 등 약품의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몸을 치료하고 남은 약들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 매립되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땅에 묻혀 토양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일으켜 지구를 병들게 한다. 대부분이 화학제품인 폐의약품은 한 데 모아 소각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는 적절한 처리방법이다.

안산시 자원순환과는 5월말까지 상록수·단원보건소와 반월보건지소, 원곡·대부보건지소와 본오3동·부곡동·성포동·선부1동·호수동 주민센터 등 10곳에 800

리터 용량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돕기로 했다. 그동안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면 매주 화요일 정해진 시간에 단원보건소 내 보관창고로 이동·보관했었다. 이번 수거함 설치는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만을 이용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없애 편리한 시간 아무 때나 가까운 장소로의 배출을 도우며,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는 효과도 창출된다.

안산 255개 약국과 6개 보건소를 통해 수거 된 폐의약품은 2013년 4,834kg, 2014년 3,906kg, 2015년 6,397kg, 2016년 6,500kg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톤 단위 수거량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버려지는 폐의약품에 비하면 많



은 양이 아니다. 수거함 설치로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배출되지 않고 전량회수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거함에 모인 폐의약품은 환경미화원들이 발생량에 따라 월 1~2회 수거해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게 된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225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개방성 · 접근성 높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국내 거리예술을 선도해 온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안산 문화광장과 안산지역 곳곳에서 펼쳐졌다. 안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열렸던 여느 때와 달리, 원곡동, 상록수역, 중앙동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광장으로 불러 모으기’ 방식과 ‘많은 시민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기’ 방식을 병행해 보다 많은 시민이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중 이틀 동안 미세먼지 경보 · 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 수는 여느 때와 비슷한 수준의 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거리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실험적 · 도전적 작품들을 대거 선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거리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행사 자체가 무산 또는 제한적으로 치러졌던 것

과 달리 이번 축제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진취적 작품들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이 직접 거리예술에 참여하는 규모도 역대 최대다. 올해 두 번째 선보인 ‘시민버전2.0’은 안산 시민예술단체 75개 팀이 참여해 축제장을 1시간 동안 환호의 도가리로 만들었으며, 단순 참여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직접 선보임으로써 ‘시민 주체 거리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개막작인 창작그룹 노니 <안안녕2017>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어지는 안산 시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편안하고 평안하자’는 안부를 건넸다. 3가지 작품으로 구성된 폐막작인 <같이 걷는 길>은 소통과 공감, 화합을 주제로 펼쳐졌다. 고공줄타기를 시작으로, 화려한 예술 불꽃, 500여 명의 풍물패들이 축제에 모인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 INTERVIEW

## 나도 한 마디



#### 장지원(29세, 고양시)

“서울 사는 친구, 선배와 함께 거리극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만났어요. 연극, 퍼포먼스, 인형극 등 다양하게 골라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공연의 질도 높고 모두 재미 있네요. 그중 ‘시네마 천국’이라는 작품이 최고입니다. 저녁 공연도 매우 기대됩니다.”



#### 여해림(19세)

“안산에 사는 고3입니다. 개막작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고공 크레인에 매달린 잠수부가 등장해 미수습자를 찾는 장면을 재현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수습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연을 봤어요.”



#### 강나루(음악차력극 ‘굿차’ 연출)

“전근대의 ‘굿’과 근대의 ‘차력’이 협업으로 통일의 염원을 풀어갑니다. 야외 쇼 차력과 서도(북한) 지역의 굿 음악이 만난 것이죠. 서도의 굿 음악이 갖는 강렬함과 차력이 주는 아찔함이 서로 상승작용하며 어르신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김규남(극단 ‘동네풍경’ 대표)

“축제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 앞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다리는 집 Ver 2.0’을 공연합니다. 소시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동네’라는 따뜻함과 정겨움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 송준우(청석초 4학년) · 송시우(유치원생 6세)

“집에 있는 소화기를 보고, 한 번 쏘보고 싶었는데, 거리극축제에서 불 끄는 연습을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매일 차가 뽕뽕 다니던 도로를 오늘은 자유롭게 다니니까 신나고 즐거워요. 매일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 NJO Kang Kie(‘모지에서 소풍을’ 음악감독)

“안산 시민들과 다른 지역 방문객들이 축제로 인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있단니, 이런 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기대를 담아 저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 역시 다른 모든 예술가의 공연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조민수(22세, 인천 연수구, 액션히어로 스텝)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규모도 크고, 공연도 다양하고, 편의시설까지 가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과 함께 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 안산시체육회, 건강체육교실 상설 운영

## 총 28개 장소에서 요가, 펜싱, 인라인까지



안산시체육회(회장 제종길)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2017 건강체육교실'을 운영한다.

건강체육교실은 안산시체육회가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와 협력하여 단원구 14개소, 상록구 14개소 총 28개소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주민들의 체육활동이 용이한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김철진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체육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건강체육교실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



강체조를 주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이 잘 된 '숲의 도시 안산'에서 진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매년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내 종목으로는 요가, 저학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펜싱 및 인라인 교실도 운영, 남녀노소 폭 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 건강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상록구 일동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요가를 배우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요가수업은 매주 화, 목요일에만 열린다. 얼굴에 잔뜩 묻어있던 땀을 금세 지운 시민들은 전문강사의 진행에 따라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했다.

평균적으로 15명 내외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하지만 매년 강의실 안이 꽉 차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문 밖에서 강사의 소리만 들으며 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요가 수강생 김소연(일동) 씨는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강사님이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자극하고 교정해 주니까 정말 좋아요. 초반엔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번 건강체육교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체육회 482-2821로 문의하면 된다.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 상록구

종목	지도자	장소	요일	시간	연락처
건강체조	유복순	감골운동장	월,수	20:00~21:00	010-8412-7998
건강체조	유복순	반원공원운동장	화,목	20:00~21:00	
건강체조	권명화	성호공원	화,목	20:00~21:00	010-8449-2235
건강체조	권용선	수변공원	화,목	20:00~21:00	010-4432-4449
건강체조	고복희	용하공원	화,목	20:00~21:00	010-3123-0007
건강체조	권명화	노적봉폭포	월,수	20:00~21:00	010-8449-2235
건강체조	고복희	이동공원	월,수	20:00~21:00	010-3123-0007
건강체조	박진아	성포공원	화,목	20:00~21:00	010-3271-6561
건강체조	김민겸	은하수공원	월,수	20:00~21:00	010-2747-8795
건강체조	원옥희	시낭운동장	월,수	20:00~21:00	010-2358-8863
건강체조	이갑례	청소년수련관	월,수,금	06:00~07:00	010-9102-1473
요가	이순예	반월보건지소	화,목	10:30~11:30	010-2324-6861
요가	김정미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화,목	09:00~10:00	010-2762-7496
펜싱	김현주	구)상록구청내 펜싱체육관	토	13:00~14:00 14:00~15:00	010-5828-8458

### 단원구

종목	지도자	장소	요일	시간	연락처
건강체조	김매화	셋터공원	월,수	20:00~21:00	010-7307-1569
건강체조	권용선	25시 광장	월,수	20:00~21:00	010-4432-4449
건강체조	명희영	관산운동장	월,수	19:30~20:30	010-6221-8913
건강체조	성향숙	경남아파트	월,수	19:00~20:00	010-8864-6436
건강체조	신재영	와동체육공원	화,목	20:30~21:30	010-2046-3277
건강체조	신재영	둔배미공원	월,수	20:00~21:00	010-2046-3277
건강체조	원옥희	민속공원	화,목	20:00~21:00	010-2358-8863
건강체조	김민겸	중앙공원	화,목	19:30~20:30	010-2747-8795
건강체조	김매화	푸르지오3차	화,목	20:00~21:00	010-7307-1569
건강체조	김혜영	별빛광장	화,목	20:00~21:00	010-4572-2452
건강체조	성향숙	화정천	월,수	20:30~21:30	010-8864-6436
인라인(초급)	고호진	호수공원	화,목	20:30~21:30	010-4490-0348
인라인(중급)	정재용	호수공원	화,목	20:30~21:30	010-4225-7353
요가	김현옥	양지마을아파트	월,수	09:30~10:30	010-2485-6827

## 안산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5위 달성

### 보치아 금5, 수영 이인국 금2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11개 종목 150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금 9, 은 13, 동 9개의 메달을 획득,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종합점수제 방식에 의해 전체 31개 시군지부 중 종합 5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안산시를 대표하는 보치아 종목의 경우 금 5개, 은 4개, 동 1개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달성했으며, 수영의 이인국선수가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모든 종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산시가 5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안산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제종길 안산시장은 "지난해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이루어냈었기 때문에 올해 그 성적을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염려도 됐지만, 열심히 준비해 온 선수들의 노력을 알기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제 시장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 종합 5위를 달성했다.



## 안산그리너스FC vs 수원

# 비바람 이겨낸 시민들의 '열기', 게임은 무승부 '아쉬움'

안산그리너스FC와 수원FC가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12라운드에서 맞붙었다. 지난 4월 9일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양팀 첫 맞대결에서 한 경기 최다득점을 거뒀지만 3대3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날의 아쉬움을 떠올리며 이날 양팀은 강한 의지로 경기에 나섰다.

경기시작 20분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게임 휘슬이 울리는 순간에 강한 비바람으로 바뀌면서 운동장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의지를 다졌고, 관중석을 찾은 시민들은 세찬 비바람을 피해 관람석 3층으로 이동하면서도 그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

다행히 이날 승부를 반영하듯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렸던 비는 20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잦아들었고, 이후 모든 시선은 경기장에 쏠렸다. 안산 선수들은 지난 11라운드 아산과의 경기에서 2-1 승리의 기세를 몰아 홈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승을 노리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수원은 2경기 연속 패배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각오가 더욱 남달랐다.

경고가 누적돼 이날 결장한 주전 공격수 라울의 자리는 장혁진이 대신했고, 지난 경기에서 성공했던 주장 박한수의 풀백 스위프트는 수원 전에도 다시 가동됐다. 안산은 포백과 미드필더의 간격을 좁힌 후 거센 압박과 협력수비로 수원의 볼 흐름을 차단했다.

전반전은 양 팀 모두 무득점이었지만 서로에게 경기흐름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전반 36분 이민주가 볼 경합 상황에서 수원의 임창균과 부딪혀 쓰러지기도 했고,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는 박준희가 수원의 골키퍼 이상욱과 공중 볼 경합 상황에서 부딪혀 쓰러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달아 일어났다. 경기 전에 내린 비로 잔디가 젖어 있어 선수들이 힘든 경기를 펼쳤다.

후반이 시작되자 수원은 안산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수원은 52분 윤태수, 70분 이승현의 슈팅 등 수차례 안산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안산 황성민의 신들린 선방이 빛을 발했다. 위기 뒤에 곧 기회. 안산은 황성민의 선방에 힘입어 반격에 나섰다. 79분 이민주의 슈팅과 83분 프리킥 상황에서 장혁진의 크로스를 받은 한건용이 슈팅을 날렸지만 골문을 아쉽게

벗어났다.

87분에는 장혁진이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수원의 이상욱에게 막혔다. 이날의 경기를 보여주듯 5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는데, 양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득점은 끝내 터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굶은 날씨만큼이나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는 첫 번째에 이어 0-0 무승부로 끝나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날 결정적인 순간마다 신들린 선방으로 안산의 골문을 굳건히 지킨 황성민 골키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키퍼들이 보통 비오거나 바람 부는 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초반에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했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며 "무실점 경기에도 불구하고 팀이 승리하지 못해 아쉽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우천으로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강한 비바람으로 관람석이 젖어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목이 터져라 '안산 이겨라'를 외쳤다. 부모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은 어린아이에서부터 학생,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선수들을 목 놓아 응원했다.

관중석에는 아이와 함께 온 외국인 가정들도 눈에 띄었고, 응원나팔을 들고 목청 터져라 불러대는 중학생, 안산의 서포터즈 '베르도르 안산', 흥경기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는 제종길 시장과 김필호 대표, 관계자들의 응원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았다. 하프타임에는 부곡중학교 댄스동아리 '울탄'이 춤으로 관중을 매료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더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 흥경기 일정

05.29(월) 19:30 vs 서울FC	06.11(일) 19:00 vs 경남	06.26(월) 19:30 vs 부산
------------------------------	----------------------------	----------------------------

## 청소년열정공간99℃ 듣고 보고 실천하는 역사교육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누는 봉사활동도 준비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첫 강의는 신대광 역사담당 교사의 사할린과 고려인 동포

의 역사 이야기로 시작했다. 신 교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과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라며, “지난날 강대국들의 논쟁가운데서 사할린 문제도 터졌듯이, 지금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할린 동포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주변을 돌아보는 역사적 감수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대앞역 부근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구 소련의 영토였던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은 지 2주 후, 어버이날을 기념해 고향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꽃을 전달해 드리는 행사가 있었고, 이곳에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했다.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사할린동포란 말을 처음 들어봤던 아이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했다. “선생님 뭔가 마음이 뿌듯해요.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타인의 사연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다. ‘청소년 근현대사와 특하다’는 6월 3일 강화도 역사기행을 거쳐 10월 14일 ‘청소년 역사톡(Talk)’으로 마무리 된다.

◇ 문의 : 청소년열정공간99℃(031-416-1318)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청소년 근현대사와 특하다(이하 청사톡)’는 역사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세상과 만나고, 살아있는 수업이다. 학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사에 포커스를 맞춘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이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4번의 강좌와 2번의 역사기행, 토론 및 그 밖의 다채로운 실천 활동으로 진행되는 청사톡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업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기행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강좌는 사할린·고려인 동포의 아픈 역사이야기, 변화의 길목에 있었던 개항기 풍경, 일제강점기 친일과 항일의 역사,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정, 4.16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또한 강화도와 민주화운동기념관 역사기행, 고향마을



## 2017 무료 노동법률강좌 임금, 산재, 실업급여... 알면 힘이 된다



5강으로 마련됐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지난 10일, 입학식과 함께 시작한 1강은 노동법의 탄생과 역사를 주제로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성우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란 자녀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어 같이 신청했다.”는 가족 수강생부터,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노동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다.”는 수강생까지... 다양한 사연과 기대가 섞여 있는 강의실이었다. “사업을 하면서 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알고 싶어 듣게 됐다.”는 사업주도 있었다.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정해진 출근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작업복을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는지 궁금하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정규직이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강좌는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오는 31일(수) 진행되는 4강에서는 노무사들이 직접 강의장에 찾아와 임금체불, 산재발생, 부당해고, 실업급여와 관련한 무료 노동상담도 진행한다.

◇ 노동관련 상담 및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임금, 산재, 실업급여 등 일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노동관련 사건들.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기만 하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률용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순 없을까?

안산시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가는 무료 노동법률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인 ‘알면 힘이 되는 무료노동법률강좌’는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까지 총



**봉사를 마치고 외치는 파이팅!** 상록구 성포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마친 안산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모여 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해 시민의견 듣는다

### 오는 6월 16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불편·개선 사항 접수

#### 이민근 의장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오는 6월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8일~16일)를 앞두고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다. 접수는 오는 6월 16일까지 받는다. 접수방법은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거나 의회사무국으로 직접 내방 또는 전화(031-481-2541, 2534, 2510) 그리고 팩스(031-481-3227)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접수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바로잡고 개선사항이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근 의장은 “의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증진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며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감사가 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들께서 평소 느끼는 행정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접수해 주신다면 이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 사무국, 소통의 시간 ‘이심전심(以心傳心)’ 마련

### 전 직원 참석하는 월례조회... 생일 축하, 청렴교육 등 다양한 ‘소통’



안산시의회가 대회의실에서 ‘소통·공감’하는 월례조회 ‘이심전심’을 개최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5월 2일 대회의실에서 이민근 의장, 여환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시간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다.

시의회는 제7대 후반기를 맞아 의회를 좀 더 소통 친화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

조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월례회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이심전심’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공유한 후, 5월에 태어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며 함께 동료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 한층 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또한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는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한 청렴교육을 실시, “투명하고 깨끗한 안산시의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여환규 의회사무국장은 “이심전심은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마음 편하게 소통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의장은 “일터가 즐거워야 직원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최근의 트렌드에 걸맞게 의회도 변화해야 한다.”며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실천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하라” 촉구 결의안 채택... 제 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의결



송바우나 의원이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4월 10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국 지방의회 처음으로 채택했다.

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안산시 관

내에 있는 소상공인 및 반월산단에 입주한 대중국 수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기도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양국 간에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관광금지,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한국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중국의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를 위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송 의원은 “중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해 5만3,455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중국인 밀집도시이고 인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단히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안산 지역에 있는 객실 수 총 1천162개의 중국인 대상 숙박업소 8곳의 예약이 모두 취소됐다.”며 “반월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일시적인 결제가 지연되고 통관절차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해 양국 간 우호 증진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행함으로써, 안산시와 중국 내 자매도시·우호협력도시 간 쌓아온 호혜관계와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이 구축해온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의결한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1회 추경 2조7,255억 수정·가결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4월 28일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4월 10일 제 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동 8곳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원곡동 일부 번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비롯해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경기도 시장군수협 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결과 용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 등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했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칙 추가 수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회의 발의를 통해 수정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조7천272억3천631만4천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6억7천207만4천원(삭감율 0.06%)을 감액해 2조7천255억6천424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민근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 시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달라.” 당부하고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안산시 청소년의회, 원구성 완료

### 의장단 선출... 오는 11월까지 회의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및 입법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안산시 청소년의회’가 15일 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배정,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 원 구성을 완료했다.

실제 안산시의회의 원 구성 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와 포부 등을 밝히면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투표 결과 최성환(경수중 3학년) 청소년 의원이 의장에, 김수민(송호중 3학년) 청소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신아린(성호중 3학년) 청소년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엄정희(반월중 3학년) 청소년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는 임유나(별망중 3학년) 청소년 의원이 각각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원 구성을 마친 안산시 청소년의회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발의와 심의 등 실제 안건 처리 과정과 동일하게 의사일정에 임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이민근 의장은 “안산시 청소년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정미, 선규네 가족과 코코와 건달이



김인숙, 리얼웨딩, 배우들 #2

## 기획전 '가족보고서'... 오는 7월 9일까지

### 공존 · 대화 · 무게 · 좌표 주제... 가족의 의미와 가치 찾기

경기도 미술관

너무 익숙하지만 때론 낯설고, 쉽게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자 삶의 무릎을 꺾이게 만드는 가장 약한 환부, 가족.

경기도미술관 기획전 '가족보고서'는 가족의 내부와 주변을 돌아보며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공존, 대화, 무게, 좌표 네 개의 키워드로 나뉜 전시는 한국과 중국 작가 14팀이 참여해 드로잉, 회화, 사진, 오브제, 영상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로 관객을 만난다.

'공존' 섹션은 과거 혈연중심에서 변화된 현대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소개한다. 재일교포 작가 김인숙의 비디오작품 '리얼 웨딩', 윤정미 작가의 '반려동물' 시리즈, 배중현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어떤 거인'과 '미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부부작가 사이오닝과 무천은 '가족도감' 시리즈에서 족보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등장인물의 의복을 통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속 양분된 세대 간의 문제를 그린다.

'대화' 섹션에서는 가족 간에 어떤 대화가 필요한지 풀어낸다. 부모님과 식탁 자리에서 자주 나오던 단어들은 도자기로 제작돼 식기가 되고, 평소 부모에게 물어볼 수 없었던 질

문과 이야기들은 손 글씨와 드로잉 대화에 담겨 한 개인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비춘다. '무게' 섹션은 가부장제 아래 가장 큰 힘을 행사하던 가장의 자리가 위태롭게 변한 풍경을 보여주며, '좌표' 섹션은 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가공한 작품들로 현재 한국 사회와 가족의 특징을 큰 그림 속에 조망해 본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텍스트가 흐르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와 함께 가족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는 '결혼피로연', '계춘할망' 등 영화가 상영되고, 7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토론회도 진행한다.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2017 입주작가 프리뷰전, '표류하는 무의식'

### 김남현, 빈우혁 등 17명의 작가들이 말하는 '선감도'

경기창작센터

경기창작센터는 2017 입주작가 프리뷰전 '표류하는 무의식'을 6월 25일까지 경기창작센터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매년 서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창작센터에 입주하는 작가들은 이곳에 거주하며 작가 특유의 본능적 예민함으로 대부 선감도가 내뿜는 사소한 자극들에 주목한다. 작가들은 경기창작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작업의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거나 이루어야 하는 특정한 목적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세계에 대한 고유한 관점 혹은 태도로 예술적 실험을 통한 동시대 논의의 지점을 짚어낸다.

이번 입주작가 프리뷰전 '표류하는 무의식'은 이러한 작가들이 앞으로 선보이게 될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작품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전초전이다. 김남현, 빈우혁 등 17명의 작가들은 이곳에서 선감도가 가진 다양한 지역성과 그들의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의 중력적 상호관계를 거쳐 작품의 주요한 텍스트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세계 속에 놓여진 작가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이들과 세계

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관계하는 작가들, 마지막으로 예술적 실험과 실험들에 주목하는 작가들로 크게 구분된다. 그들이 주목하는 세계와 그들이 선택한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은 작가의 고유한 존재성이며 식별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독자 기고

## 참 열심히 사는 안산의 어머니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우연히 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강좌에 나가 '어머니 독서교실'과 '다문화가정 주부 대상 한국어 수업'을 맡게 됐다. 물론 자원봉사다.

며칠 전 강의실 책상 위에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하얀 안개꽃과 진홍빛 다알리아, 그리고 연분홍의 백합까지 바구니에 넘치도록 풍성하다. 옆자리 강사님이 "어머, 생일이신가 봐요?"하신다. "아닌데... 누굴까?"

어? 그런데 한쪽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다. "선생님 강의 넘(너무) 재미있었어요. ○○○올림" 아! 그리고 보니 오늘은 독서교실반이 종강하는 날. 수업을 들었던 한 분이 보내온 것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어머니 독서교실'을 운영했다. 자기소개를 나누다보니 뜻밖에도 약사선생님, 부동산중개인, 금은방 사장님 등... 바쁜 일과를 쫓겨 나온 분들로, 열의가 대단했다.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들은 독서나 글짓기보다 '인생'에 대해 토론하기를 더 즐겼다. 수강생들의 나이가 엇비슷한 40대 중반이다 보니 공유할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인 듯했다. 독서에 대해 열심히 강의한 후 "이제 글을 직접 써 보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모두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러면서 "선생님,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면 안 될까요?"하신다. 이럴 때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까르르" "호호호" "하하하", 소녀처럼, 거짓이 없고 여유가 넘친다. "네, 그러세요."하면 "와~"하며 신이 난다.

곧바로 인생토론이 시작된다. 특히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문제, 남편문제 등등. 적극적인 열변이 이어지며 매번 수업시간을 초과한다. 토론에는 꾸밈이나 거짓도 없고 서로 멘토가 된다.

"우리 강좌이름을 '어머니 인생교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또 다시 "까르르"

가정에서는 현모양처이고 안산시에서는 성실한 시민이며,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이웃 주부들. 언제나 젊고 활력이 넘쳐 좋다.

● 김옥임(안산시 단원구)



의학 칼럼

## 전당뇨병(前糖尿病)이 왜 문제인가?



전당뇨병이란 당뇨병 전단계라는 뜻으로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수치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5~10년 내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당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뇨만큼 높아 더욱 주의를 요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미국 당뇨병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20세 이상 성인 약 8,600만명이 당뇨병 전단계로 보고 있으며, 한국 또한 미국 못지않은 상황으로 아마도 성인 5명 중 1명은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90%는 자신이 전당뇨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 별다른 증상이 없기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때까지 생활습관이나 식사조절, 운동 등을 등한시하다가 능히 예방할 수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실명, 다리절단, 신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에 속절없이 희생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전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는 공복혈당검사, 당부하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A1c)의 세가지가 있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며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공복혈당검사상 공복혈당 100 미만은 정상 수치이며 당뇨병 전단계는 100~126 사이, 126 이상 넘으면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공복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전당뇨나 당뇨병으로 진단 될 수 있으니 주로 공복시에 검사를 진행하는 신체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전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식없이 측정하는 임의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하여 전당뇨병을 색출, 관리 하여야 한다. 당화혈색소검사는 최근 2~3 개월의 혈당 추이를 반영하는데 정상은 5.7% 미만, 5.7~6.4%는 당뇨병 전단계, 6.5% 이상은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 될 수 있다.

● 이호준\_심장내과 전문의

## 미아방지 이렇게 대처하자



5월 가정의 달,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단위 외출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놀이공원과 유원지,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축제와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들과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매년 이따면 미아 신고 건수가 다

른 달에 비해 증가한다.

이에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미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및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보호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아 방지에 대한 요령을 수시로 교육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아무리 가까운 은행, 편의점,

화장실이라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손목 팔찌, 목걸이 등 미아용품 착용하도록 한다. 셋째,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도록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에 자녀의 이름과 연락처

를 적어 놓는다. 그래야 낯선 사람들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부모님은 평소 자녀에게 자신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과 전화번호, 살고 있는 곳

등을 외우도록 하며,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의 성장사진이 결정적 단서인 만큼 자

녀의 사진을 저장해 둔다. 다섯째, 낯선 사람이 과자나 장난감으로 유인하거나 친근하

게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자고 할 때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

여섯째, 직접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기 어려운 가정은 인터넷경찰청 안전Dream(www.

safe182.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m.safe182.go.kr)을 이용한다. 전국 어디서나 보

호자의 공인인증서, 자녀의 사진과 지문등록만으로 미아방지 지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는 신속히 112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

도록 한다.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경찰기고



###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디자인 공모전

- ◇ **공모주제** : 내 마음의 심포, 삶에 정원을 더하다.
- ◇ **공모기간** : 2017. 5. 10.(수) ~ 6. 11.(일)
- ◇ **주최·주관**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 **참가대상**
  - 작가정원부문(Show garden): 조경, 원예, 화훼 및 정원 관련 전문가
  - 참여정원부문(Living garden)
    - : 정원조성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조경, 원예, 화훼 등 정원 관련 단체, 협회, 동아리,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



### 2018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개최

- ◇ **일시** : 2017. 6. 3.(토) 14:00 ~ 17:00
- ◇ **장소** :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
- ◇ **참석대상** :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학부모
  - ※ 당일 선착순 13시50분까지 등록 후 무료입장
- ◇ **주최·주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안산시
- ◇ **후원** : 경기도교육청 · 안산교육지원청



### '나누리 다문화 꿈의학교' 학생 모집 안내

- ◇ **대상** : 관내 다문화 학생 (4.5.6학년)
- ◇ **모집기간** : 2017.5.1.(월)~모집완료시
- ◇ **교육장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2길 (군자포커스프라자 505호)
- ◇ **모집방법** : 선착순 20명 (정원 초과 시는 상급학년이 우선)
- ◇ **교육내용** : 맞춤형 학습지도, 지역사회 이해교육, 학교와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교실, 창의과학 교실, 진로·직업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
- ◇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 무료
- ◇ **교육시간** : 토요일과 방학 중 2~3시간
- ◇ **신청 및 상담** : (031) 495-0998, 010-9054-6593, 010-4412-0871



###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 **모집기간** : 2017. 5. 22.(월) ~ 5. 29.(월)
  - 선발확정 : 2017. 6. 28.(수)
  - 사업기간 : 2017. 7. 3. ~ 10. 31.
- ◇ **선발인원** : 350명 (21개부서 26개 사업)
- ◇ **접수장소** : 신청인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및 건강보험 부양자 도장
- ◇ **근무여건** : 주 30시간 이내(주5일 근무, 5~6시간/일), 만 65세 이상 1일 3시간이내 근무, 4대 보험 가입
- ◇ **임금** : 시급 6,470원(교통·간식비 3천원/일, 주휴·연차수당 별도)

### 제31회 안산시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 ◇ **선발인원** : 5명 이내
- ◇ **공고기간** : 2017. 5. 2. ~ 5. 31
- ◇ **추천대상** : 여성의 인권보호, 지위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 권익증진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
- ◇ **수상자 결정** : 2017. 6월 중
- ◇ **수상시기** : 제22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 (2017. 7. 4)
- ◇ **시상내용** : 안산시장 상패



### 책 읽는 안산 / 5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다』



#### 행운을 찾아서

저자 세르히오 라이를라 / 출판사 살림어린이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각각 여행을 떠나는데 같은 여행지로 가게 됩니다. 책 앞에서는 행운씨의 여행이, 책 뒤에서는 불운 씨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앞뒤로 보는 독특한 콘셉트의 이야기는 어느 쪽부터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앞뒤 이야기를 모두 읽고서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그림을 살펴보면 장면마다 숨겨진, 두 사람의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읽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 아이들, 길을 떠나 날다

저자 김향미, 양학용 / 출판사 예담

열세 명 어린 배낭여행자들의 라오스 여행기입니다. 열한 명의 청소년과 두 명의 대학생이 함께 라오스 여행을 준비하고, 한 달 가까이 여행하고, 또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콕에서 시작해 국경을 넘고, 라오스의 주요 도시 및 소도시들을 지나 다시 방콕에서 마무리하는 쉽지 않은 여정에서 날아오를 듯 가볍고 자유로운 아이들의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 열두달 놀토 아빠표 체험여행

저자 구완희 / 출판사 웅진리빙하우스

『열두 달 놀토 아빠표 체험 여행』은 일 년 열두 달의 달력에 맞춰 서울 근교 여행지를 매주 한 곳씩, 1박 2일 여행지를 매달 한 곳씩 떠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여행지 총 60곳을 엄선하여 소개한 책입니다. 사진과 함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여행지에서 배운 것들을 퀴즈로 풀어보는 '더 알고 싶어요' 등으로 효과적인 체험 여행을 제시합니다.